

풀 한포기에도 생명의 환희 넘치는 대간

비오는 날 산길을 걸으며, 산다는 것은 곧 '관계 맺기'임을 새삼 깨닫는다.

종이리를 스치는 물기 머금은 풀잎사귀, 후두둑 물방울을 떨어뜨려 얼굴을 스다듬는 나뭇잎, 평소 무심히 스쳐보던 것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막이 피라미드라는 관계로 볼 때,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앉은 오만하고도 물염치한 '포식자' 일뿐이다.

아무리 굽게 심려고 밟아도 사람이 산다는 일은 본시 염치없는 것이다. 한 순간이라도 자연에 빗지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적립'하고 있지만 자연이라는 요람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연에 의해 거두어지고 길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다.

하늘과 땅의 거대한 '관계 맺기'로서의 비(霽), 그 비를 맞으며 산길을 걷는 일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우주적 리듬에 나를 실어올리는 일이다. 그러면,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되는 깨달음 절로 알게 된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다. 나 아닌 다른 모든 남들과의 관계가 곧 내 삶의 실체다. 비오는 날 산길을 걸을 때, 풀잎사귀들이 나를 일깨우는 바다.



◁실악산에서 바라본 정봉산 원경. 화면 오른쪽으로 동상 솟은 봉우리가 '숲의 천국' 정봉산 정상이다.

신을 벗으면
벼드나무 밑에서 찌꺼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한 깨달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질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천라도 길.

한하운의 길과 나의 길은 분명 다르다. 한하운의 길은 운명의 길이자 천행의 길이었지만, 나의 길은 그의 길이 아니다. 약간의 몸고생을 빼고는 아주 행복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실은, 나의 길 또한 내 의지와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길을 낸 앞선 걸음이나, 때때로 목을 축일 물을 베풀어 주는 하늘과 땅의 은덕 없이는 불가능할 길이다. 알게 모르게 진 빛이 태산 깊다.

밤새 비가 내린다. 숲이 몸을 뒤켠다. 아침까지 계속 되던 비가 점점 나절이 되자 멈추는 듯 하다가는 다시 뿌리기를 반복한다.

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기린면을 이어주는 백두대간의 고갯길인 조침령을 지나는 대간은 영구리에 품듯 산동네 하나를 끼고 있다. 한때 오지의 대명사로 불렸던 진동 마을이다. 지금은 정봉산 상부 댐 공사로 길이 크게 풀렸지만 적가리골, 아촌가리골, 연가리골은 아직도 때묻지 않은 원시적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

조침령에서부터 북암령을 지나 단목령에 이르기까지 산마을과 대간의 길동무는 계속된다. 단목령 북쪽은 양양군 서면의 오가리, 남서쪽 대간 기슭은 진동계곡의 상류이자 설피밭으로 유명한 강선리다.

조침령과 북암령 사이 댐 건설 현장의 생채기가 보여주는 현대문명의 폭력성이 마음을 무겁게 하긴 하지만 자연의 에너지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즐거운 산행이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백두대간 속으로

< 38 >

구룡령 → 단목령

구룡령(1013m)마루 위, 산허리를 도려낸 자리에 다리처럼 놓인 생태이동통로를 빌려 산으로 든다. 초입부터 울창한 숲이다. 만약 사람이 피부 호흡을 할 수 있다면 몸속 가득 푸른 기운이 스며들 것 같다.

정령(精靈), 산천과 초목에 깃든 혼을 일컫는다. 옛 사람들은 그것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지금, 유전자까지 조작해 내는 세상에 그것을 굳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누구라도 백두대간을 걸어 보면, 특히 오대산이나 정봉산의 품에 안겨보면, 자연의 정령을 실감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건 논리정연한 이성적 작동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일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온다. 마치 우연히 바라보게 된 저택 노을을 보며 터져나오는 탄성처럼.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휘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바뀌처기가 불가능한 신념, 그것이 믿음이다.

구룡령에서 두어 시간이면 갈전곡봉(1204m)에 닿는다. 1천 미터가 넘는 봉우리를 두 개나 넘어야 하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험준한 길은 아니다.

갈전곡봉에서는 서북쪽으로 나아가는 백두대간 줄기 말고도 동남쪽으로 툭실한 가지줄기를 뻗어내

산 좋고 물 맑아
이름난 약수 즐비
오지마을 진동리
순수함에 반하고

리며 가칠봉(1240.4m)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데 이 구간의 백두대간 기슭에는 유난히 약수가 많다. 가칠봉 기슭의 삼봉약수, 구룡령 전 약수산 북동쪽 기슭 미천골의 불바라기 약수, 진동계곡의 물이 방태천(계속 흘러 내린천으로 이어져서 한강 물을 살찌운다)으로 흘러드는 어름에 자리잡은 방동약수, 양양에서 홍천쪽으로 넘어 구룡령 초입의 갈천약수 등, 흔히 산 좋고 물 맑다는 우리 산천의 미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갈전곡봉에서 북서쪽으로 휘어지다가 북쪽으로 허리를 곧추세우는 백두대간은 쇠나드리를 지나 조침령, 북암령, 단목령에 이를 때까지 하염없이 울창

한 수림을 헤쳐 나간다. 가끔씩 터지는 시야로 설핏 먼산의 허리를 보여줄 뿐, 대부분의 길은 숲으로 하늘을 삼는다. 덕분에 해가 하늘의 정수리에 걸린 때에도 짙은 초목 그늘 속으로만 걸을 수 있다.

하루 종일 종이리가 쓰러릴 정도로 나뭇가지에 굽히며 수풀을 헤쳐나가노라니, 문득 가도 가도 붉은 황룻길로 시작되는 한하운의 시가 떠오른다. '소록도 가는 길에'라는 부제가 붙은 '천라도 길'이라는 제목의 시다.

가도 가도 붉은 황룻길
숨막히는 더위 땀이더라.

낮선 친구 만나면
우리를 문둥이끼리 번갈다.

천안 삼거리 지나도
쉴새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룻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팔뚝거리며
가는 길



◁구룡령에서 단목령 가는 길은 초록나라의 행복한 국민(?)이 되는 길이다.



21세기가 시작하는 해에
한마음의 에너지 주장자를 세워
지구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독일 대법회에
일심정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inklang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

대행 큰스님 독일 대법회

장소 : 독일 에센시 그루가할레(Grugahalle)
일시 : 2001년 8월 11일 (오후3시30분)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전화 : 49 - 2131 - 96 95 51
팩스 : 49 - 2131 - 96 95 52
E-mail : hanmaum@t-online.de
www.hanmaum-zen.de

한글 홈페이지에 자세한 법회안내가 있습니다.